

진실의 힘

TRUTHFOUNDATION

현장

진실을 기록하는 여정, 시작합니다.



| <진실의 힘>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기록을 시작합니다 더 늦기 전에, 그들의 목소리로 그들의 역사를 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돌아보고, 후세가 그들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정당하게 '애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세상은 피해자의 생(生)에만 주목합니다. 국가폭력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려 사형선고를 받고, 장기수가 되어 감옥에 갇힌 채 죽음 같은 시간을 보낸 그들의 생(生)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이 감옥 밖을 나와 '아직도 끝나지 않는 고통'과 싸우고, 자기 삶의 진실을 찾아 길고 긴 법정 싸움을 하고, 자신의 고통을 넘어 다른 희생자들에게 연대의 손을 잡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피해자 이전에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세상은 이미 다 잊어버린 것일까요?

<진실의 힘>의 기록 작업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한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기록하겠습니다. [▶자세히 보기](#)

공지

2021 진실의 힘 인권활동과 연구 지원사업

새로운 문제의식으로 중요한 인권침해의 실상을 밝히고, 피해자의 권리회복을 지원하며, 법과제도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과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

칼럼

싹쓸이 벌목, 거꾸로 가는 산림청

최병성 목사 · 환경운동가



| 울창하던 숲이 싹쓸이됐습니다. 벌거숭이가 된 민둥산들이 도로를 따라 끝없이 이어집니다. 마치 몽골 사막지대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도로에서 조금 안쪽 골짜기로 들어가자 더 처참한 벌목 현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골짜기 쪽은 숲을 전멸시켰습니다. 산림청은 이를 '숲 가꾸기'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숲을 전멸시키는 재앙입니다. [▶자세히 보기](#)

칼럼

너무나 똑같은 죽음, 다시는...

김도현 (고 김태규씨 누나, 산재피해유가족 모임 '다시는')



| 또 한 명의 청년을 잃었습니다.

4월 22일 오후 4시쯤, 경기도 평택항에서 일하던 23살 이선호씨의 삶이 멈췄습니다. 동식물 검역 일을 하던 이선호씨는 개방형 컨테이너에서 뒷정리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10여분 만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300kg 가량의 철판이 그를 덮친 것입니다. 안전교육도 받지 못했고, 그를 보호해줄 안전모 하나 없었습니다. 수신호나 무전으로 상황을 알려주는 안전 관리자도 없었고, 감독관도 없었습니다. 사측 관계자는 사람을 살리는커녕 우선에 보고하느라 바빠서 응급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수원 건설 현장에서 제 동생 태규를 잃은 저로서는故 이선호 씨의 죽음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2년 전 태규의 죽음과 꼭 닮았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보기](#)

에세이

몸이 기억한다.

김형숙 세월호 생존자 김동수님 아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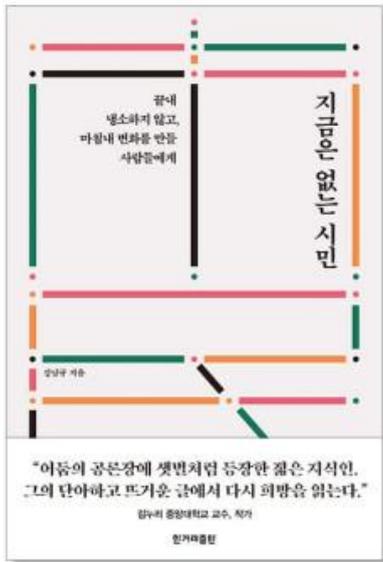
| 세월호 의인 김동수씨는 올 봄도 아프게 보냈습니다. 동수씨를 돌보고 있는 담당 의사는 '몸이 기억한다' 고 했습니다. 스스로 발버둥치며 이겨내고 싶어도 그날의 일을 몸이 기억하는 이상 견뎌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사의 우려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7 주기 한 달 전부터 시작된 동수씨는 짜증이 늘고, 예민하고, 무엇을 해도 즐겁지가 않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반갑지가 않은 채 자신만의 성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후원회원 인터뷰

지금은 없는 시민

강남규, 김경훈 후원회원



▶ <진실의 힘> 앞으로 책 한 권이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없는 시민'(강남규, 한겨레출판). 우리 시대 시민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묻는 이 책은 2019년부터 2021년 초까지 경향신문, 미디어스에 연재한 저자의 칼럼을 묶은 책입니다.

책 제목도 흥미롭지만, 더 눈길을 끈 것은 저자와 편집자입니다. 저자 강남규, 편집자 김경훈. 우연인지 필연인지, 두 사람은 <진실의 힘> 회원입니다. 그것도 보기도문 청년 회원. <진실의 힘>이 젊은 세대에게 한발 다가가는 마음으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 [자세히 보기](#)

사업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지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재출범했습니다. 진실의 힘은 1기 진화위(2006~2010)가 당시에는 인권 침해적 시각에서 바라보지 못했던 형제복지원 등 강제수용시설 문제를 비롯해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을 발굴하고, 진실규명 신청을 하는 피해자들을 지원합니다.

▶ [자세히 보기](#)